

울산시와 함께하는 준법윤리경영 페어플레이어클럽 세미나 개최 결과

울산광역시와 울산상공회의소,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2016년 11월 28일 울산상공회의소 6층 회의실에서 '준법·윤리경영 페어플레이어클럽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자치부, 국민권익위원회 및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Siemens Integrity Initiative)가 후원하고 (사)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이 주관하는 본 세미나는 반부패 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프로젝트인 '페어플레이어클럽 (Fair Player Club)'의 2차년도 다섯 번째 세미나로, 울산시 공기업 및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준법·윤리경영의 국내외 동향과 반부패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소개하고, 반부패 기업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페어플레이어클럽 2차년도 첫 번째 세미나는 서울시와 함께 2016년 7월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두 번째 세미나는 부산시와 함께 2016년 9월 20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세 번째 세미나는 광주시와 함께 2016년 9월 22일 광주상공회의소에서, 네 번째 세미나는 대구시와 함께 2016년 11월 11일 대구 엑스코에서 성공적으로 공동 주최한 바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장수래 창조경제본부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는 지금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이자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변화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 이제 준법윤리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울산시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 등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하는 시대적 환경에 맞추어 공정한 비즈니스 환경이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상공회의소 이동환 관리이사는 환영사에서 "최근 우리 사회는 청탁금지법 시행과 사회적 이슈로 인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오늘 세미나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공기업은 물론 민간기업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마련되었으니 울산 지역 기업들이 윤리경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임홍재 사무총장은 “현 시점에서는 기업들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 보다 버느냐를 주시하고 있다”며 “이제는 인권, 노동, 반부패 가치를 기업의 경영전략 및 정책 관행뿐 아니라 운영에 내재화해야만 기업의 지속발전이 가능하다”고 언급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및 반부패 국제동향 발표에서 UN, OECD, 미국 FCPA, 영국 뇌물법 등 글로벌 반부패법과 UNGC의 반부패 활동들을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국제 청탁금지법 TFT팀장 이일권 변호사는 ‘청탁금지법 소개 및 국내 기업 대응방안’ 발표에서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청탁금지법의 제정배경과 적용사례를 소개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곽글 주임연구원은 ‘반부패 가이드라인 및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소개’ 발표에서 반부패 규범 확산에 힘입어 기업의 준법감시 프로그램 수립이 중요해짐에 따라, 반부패 법안 대응을 위해 기업이 실질적으로 수립·적용할 수 있는 반부패 가이드라인과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소개했습니다.

준법윤리경영의 비즈니스 기회에 대한 기업 사례 발표에서 울산시설공단 장은혜 과장은 울산시설공단의 청렴실천결의 및 청렴교육을 언급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다방면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렴정책을 설명했습니다. 한국 지멘스 박종근 윤리경영실장은 최고경영진의 의지, 사내 업무 관계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준법 리스크 평가, 임직원 내부고발 채널 운영 등 윤리경영 통합체계를 구축한 지멘스의 노하우를 공유하였습니다.

(사)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강주현 상임대표는 페어플레이어클럽을 소개하고 반부패 서약을 안내하면서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페어 플레이 반부패 서약을 통한 기업 문화 개선의 가능성에 대하여 강조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 동종기업은 물론 이종 업종 기업들간에도 공동노력 (Collective Action)이 필요함을 역설하였습니다.

페어플레이어클럽은 앞으로도 서울, 부산, 광주, 대구, 울산, 대전 인천 등의 광역 자치단체와 지역상공회의소와의 민관협력 증진을 통해서, 전국 주요 도시에 위치

한 기업 대상으로 반부패와 준법·윤리경영 중요성을 전파하여 기업의 부패 리스크 방지와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